

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

강봉주 | 부전문위원(3705-6052)

- [동행]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 발표 시 제시했던 표의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
 - 처음 관세율 표가 제시되었을 때, “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”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이 큰 차이
- [수치 추정] 실제로는 “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”이 아니라 “2024년 미국과 해당국가와의 상품수지(분자)/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(분모)” 수치와 일치

<산출 기준 추정(30여개 국가만 우선 계산. 금액 단위는 십억달러)>

국가	2024년 미국의 상품수출 (A)	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 (B)	2024년 상품 (Goods) 수지(A-B)	상품수지/ 미국의 상품수입 ((A-B)/B)	트럼프 4.2일표 관세율(C)	미국이 부과할 할인관세 율(약C/2)
중국	143.5	438.9	-295.4	-67.3%	67%	34%
EU	370.2	605.8	-235.6	-38.9%	39%	20%
멕시코	334	505.9	-171.9	-34.0%	USMCA로 일시 제외	
베트남	13.1	136.6	-123.5	-90.4%	90%	46%
아일랜드	16.5	103.2	-86.7	-84.0%	EU에 포함	
독일	75.6	160.4	-84.8	-52.9%	EU에 포함	
대만	42.3	116.3	-73.9	-63.5%	64%	32%
일본	79.7	148.2	-68.5	-46.2%	46%	24%
인도	41.8	87.4	-45.7	-52.3%	52%	26%
한국	65.5	131.5	-66	-50.2%	50%	25%
캐나다	349.4	412.7	-63.33	-15.3%	USMCA로 일시 제외	
태국	17.7	63.3	-45.6	-72.0%	72%	36%
이탈리아	32.4	76.3	-43.9	-57.5%	EU에 포함	
스위스	24.9	63.4	-38.4	-60.6%	61%	31%
인도네시아	10.2	28.1	-17.9	-63.7%	64%	32%
말레이시아	27.7	52.5	-24.8	-47.2%	47%	24%
프랑스	43.5	59.9	-16.3	-27.2%	EU에 포함	

국가	2024년 미국의 상품수출 (A)	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 (B)	2024년 상품 (Goods) 수지(A-B)	상품수지/ 미국의 상품수입 ((A-B)/B)	트럼프 4.2일표 관세율(C)	미국이 부과할 할인관세 율(약C/2)
영국	79.9	68.1	11.8	17.3%	10%	10%
이스라엘	14.8	22.2	-7.4	-33.3%	33%	17%
필리핀	9.3	14.2	-4.9	-34.5%	34%	17%
칠레	18.2	16.5	1.7	10.3%	10%	10%
싱가포르	46	43.2	2.8	6.5%	10%	10%
브라질	49.7	42.3	7.4	17.5%	10%	10%
호주	34.6	16.7	17.9	107.2%	10%	10%

데이터 출처: U.S. Trade in Goods by Country, US Census Bureau

<https://www.census.gov/foreign-trade/balance/index.html>

- 4.2일 발표된 “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”(C) 는 실제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(국가별)(B)을 분모로, 미국의 상품수지(국가별)(A-B)를 분자에 넣고 산출된 숫자와 일치(해당 비율이 -10%를 넘어서면 10%로 변환)
 -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은 1315억달러, 상품수지는 -660억 달러로,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-50.2%이며, 트럼프 표 상의 50%와 동일
 - 나머지 국가들도 해당 표의 (A-B)/B 수치와 C가 완전히 일치
- 4.2일 트럼프 표의 순서는 상품수지 적자 절대규모 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이며, 일부 순서가 약간 조정
- 미국이 부과할 할인(Discounted) 관세율은 해당 수치의 절반으로 책정
- [시사점] 4.2일 표의 관세율은 양국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며, 산정방식으로 볼 때 향후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, 상품적자 자체를 축소시키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
 -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하여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,
 -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문의: 02-3705-6052 혹은 bj.ka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

